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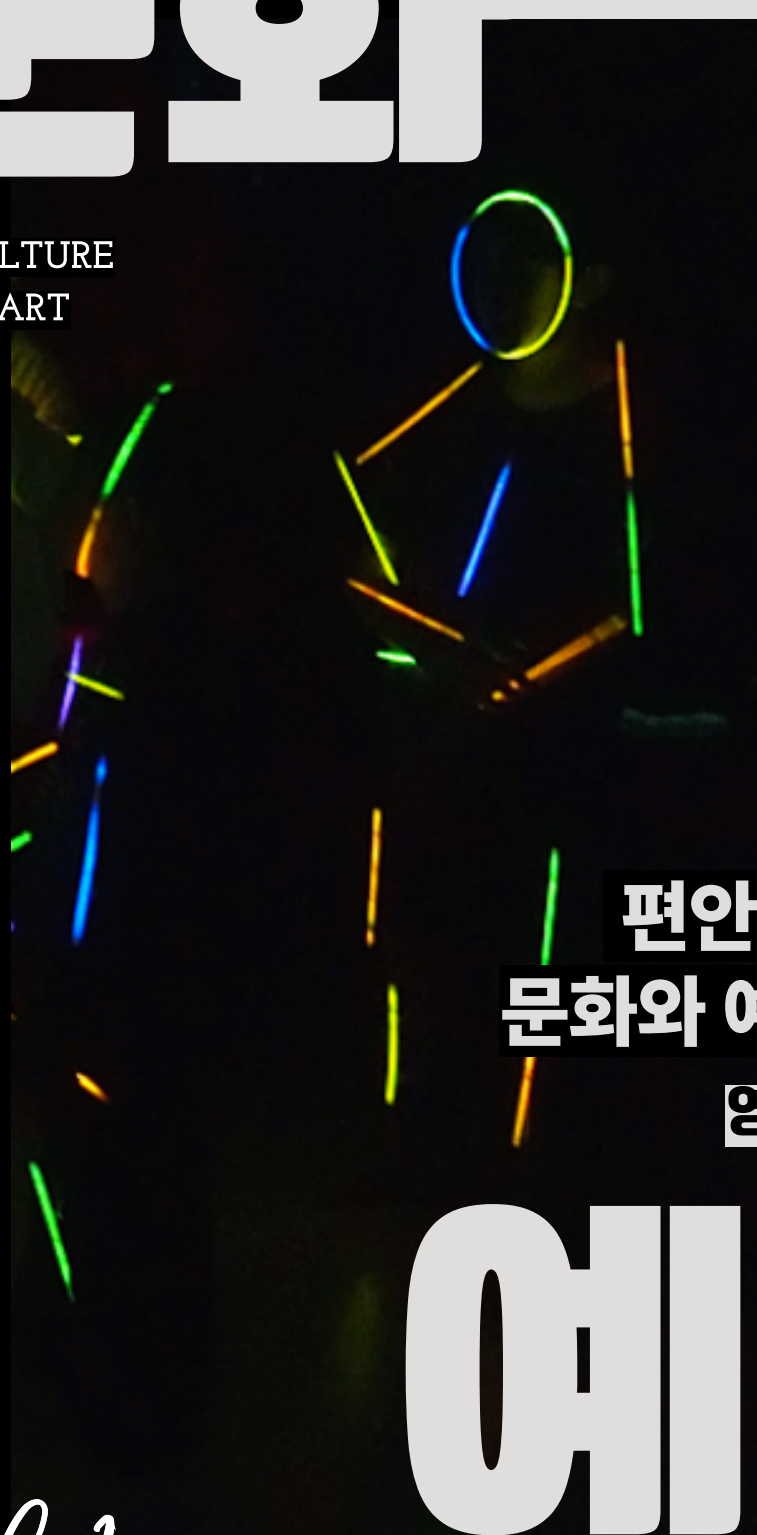
2025

YOUNGWOL — CULTURE & ART  
문화 x 예술 x 영월

2025 기초재단협력사업 스타트업 \_ 벨의학교 \_ 천문과 예술이 만나다 \_ 中 움직이는 벨벳

# 문화

CULTURE  
& ART



편안히 흐르는  
문화와 예술의 순간들  
영월문화관광재단

# 영월

vol. 1

예술 영월

# 문화, 예월

문화는 사람을 남기고, 사람은 지역을 만든다.

어떤 도시는 기억으로 남고,  
어떤 도시는 이야기로 살아남습니다.  
영월은 그 둘을 모두 가진 곳입니다.

『문화, 예월』은 영월문화관광재단이 한 해 동안 이곳에서 피어난 문화예술의 순간들을 모아 만든 시간의 책입니다. 무대 위에서 떨리며 노래하던 청소년의 숨결, 조용한 작업실에서 완성된 한 장의 사진, 마을 축제의 웃음과 박수, 그리고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의 오래된 기억까지이 모든 것이 영월의 문화가 되어 서로를 비춥니다.

우리는 종종 문화의 결과만을 보지만, 『문화, 예월』은 그보다 더 소중한 과정과 마음을 기록합니다. 왜 이 예술이 필요했는지, 이 시간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들이 어떻게 영월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는지를 묻고,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갑니다.

이 책은 한 해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쉼표입니다.  
영월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문화의 결들이 이 안에 포개어져,  
누군가의 내일로 다시 흘러가길 바랍니다.

『문화, 예월』은 영월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영월의 문화가 스쳐 지나가지 않고,  
기억으로 남도록 붙잡아 두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영월의 문화가, 이 기록을 통해 더 오래, 더 깊게, 더 멀리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월의 문화는 계속되고,  
그 이야기는 『문화, 예월』에 남습니다.

／  
Bye, 2025  
Hello  
2026

끝은 항상 정리의 얼굴을 하고 오지만  
사실은 다음 시작을 위한  
여백을 남기고 간다.  
지워진 자리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숨을 쉬도록.

끝과 시작 사이,  
그 짧은 틈에서



02 **예월, 열다 (재)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상현**

04 **2025 올해의 찬상\_ISSUE**

- 04 01 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 10주년
- 06 02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베토벤 열정상
- 14 03 꿈의극단 예비거점 선정
- 16 04 낮도깨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 20 05 아르고공연예술연습공간 위원장상 수상

22 **예술가의 서재**

공연연습공간 : 아르고공연연습센터@영월

27 **2025년 문화, 예월 특집**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사업

39 **2025 문화, 예월 그날의 온기<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

01 성장하다

- 40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 50 꿈나무 교실\_팔레
- 5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 62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사업 '가가호호'
- 73 꿈의극단[예비거점]

02 만나다

- 75 2025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 86 2025년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 90 2025년 어린이를 위한 문화 공연
- 95 강원도립극단 기획공연
- 98 지역 간 우수 문화교류(금정문화재단)
- 100 지역전시활성화

03 잇다

- 107 2025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  
(전문예술, 청년예술, 장애예술, 생활예술, 찾아가는문화활동)
- 124 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영월 빅밴드)

04 확장하다

- 126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
- 133 2025년 종합컨설팅 소프트웨어 컨설팅 사업

134 **내일을 향해**

- 134 01 예술이 스며드는 시대의 물결 - 달라지는 문화예술 정책
- 150 02 2026년 영월 4대축제
- 155 03 2026 공연예술지역유통 지원사업
- 155 04 2026 영월 예술인/단체 DB 등록신청

155 **독자참여코너**



## "예술영월, 열다"



문화는 언제나 사람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의 언어로 건네는 한마디 인사, 마을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생활의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노래와 몸짓, 이야기들이 모여 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 갑니다.

영월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곳입니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이 촘촘히 이어져 있는 이곳에서는 예술이 무대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호흡하며 자라납니다.

누군가의 취미로, 누군가의 생업으로, 또 누군가의 지역으로 문화와 예술은 영월 곳곳에서 각자의 속도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문화, 예술영월」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 온 영월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전문 예술가이기 이전에,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 온 여러분이 이 잡지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에 담긴 인터뷰는 거창한 성공담이나 화려한 이력이 아닙니다. 대신 오랜 시간 지역에 머물며 쌓아온 삶의 결, 예술을 통해 이웃과 연결되고 마을과 관계 맺어온 이야기, 그리고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기록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곧 영월의 문화자산이며, 미래로 이어져야 할 지역의 기억이라고 믿습니다. 문화예술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이기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주민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문화, 지역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예술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문화의 향유자이자 주체가 되는 환경을 만들고, 생활 속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잡지가 그 첫 기록이자, 앞으로 이어질 더 많은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인터뷰에 가까이 응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이 기록을 함께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월의 문화예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12월 26일

2015**2025**

**YCTF**

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

# 창립 10주년 기념식

2025.12.23.(화) 14:00  
영월문화예술회관



**10TH**

**ANNIVERSARY**



영월의 문화가 10년을 채웠다.

2015년 12월 29일 영월문화재단으로 출발해, 2023년 1월 30일 영월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정비된 이후, 재단은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며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2025년 12월, 그 10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했다. 무대 위의 울림이 행사장의 공기를 부드럽게 열었고, 이어진 기념사와 축사에서 재단이 걸어온 시간에 대한 의미와 감사가 전해졌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지역 축제의 성장,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확대, 관광 기반 사업의 확장 등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이날의 중심은 '사람'이었다. 재단과 함께 현장을 지켜온 이들, 협력기관과 예술인, 그리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시간이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공유됐다. 특히 2025년 공로상 수여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다.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재단의 10년이 곧 지역 공동체의 10년이었음을 다시 확인했다.

2035 비전도 공식적으로 선포됐다.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재단의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며, 문화와 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음 단계의 약속에 가까웠다.

이번 10주년 행사는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차분한 다짐에 가까웠다. 지나온 시간을 기념하고, 함께해 온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다시 출발선에 서는 자리였다. 영월의 문화는 그렇게 10년을 지나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다.

# TUTTI, 함께 만든 올림

: 모두의 연주가 하나가 될 때

---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 '베토벤 열정상' 수상



음악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한 음, 한 박,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연습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울림이 된다.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가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에서 '베토벤 열정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은, 이 아이들이 만들어 온 그 울림이 이제 무대 너머로도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베토벤 열정상은 단순한 연주 기교나 결과만을 평가하는 상이 아니다.

꾸준한 연습, 음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오케스트라로서의 성장과 협업의 과정을 함께 바라보는 상이다.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는 화려한 환경이나 풍부한 자원보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음악에 대한 진심으로 이 자리에 도달했다.


작은 지역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개인 레슨과 합주, 악기 관리와 이동, 협업과 연습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까지,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아이들이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무대에 서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택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번 수상은 바로 그 긴 시간에 대한 응답이다. 이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성과는 무대 위의 박수보다 그 이전의 시간에 있다. 방과 후와 주말,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아이들은 악기를

들고 다시 모였다. 서로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고, 자기 파트를 책임지는 법을 익히며, '함께 연주하는 법'을 몸으로 익혀 왔다.

'TUTTI'는 음악에서 '모두 함께'를 뜻한다.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언제나 이 말에 가장 가까웠다. 누군가 앞서기보다, 누군가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를 살피며 아이들은 하나의 호흡으로 음악을 만들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연주자가 아니라, 하나의 팀이 되었다. 이번 베토벤 열정상 수상은 영월의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얼마나 깊이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지역에서도 충분히 수준 높은 예술교육과 예술적 성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다.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이 아이들의 소리가 이제 전국의 무대에 닿고 있다는 사실은, 영월이 가진 문화의 힘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는 오늘도 연습을 계속한다.

다음 한 음을 함께 연주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음악은,  
영월의 아이들이 함께 성장해 온 시간처럼  
오래도록 울릴 것이다.



## 지휘자 김석구

- 현) 오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 이탈리아 마리아노 코멘세 아카데미아 최고과장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아이아르티 아카데미아 졸업
-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단원 역임
- 대전시립 교향악단, 경북도립 교향악단 객원 지휘
- 이탈리아 사크로 쿠오에 성당 건립 기념음악회 초청 연주 지휘
- 오페라 LE NOZZE DI FIGARO, LA TRAVIATA, LA BOHEM,  
ROMEO ET JULIETTE, DON PASQUALE, LA SERVA  
PADRONA, DIE ZAUBERFLÖTE, GIANNI SCICCHI 등  
다수의 오페라 지휘

##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 연주곡



#### Bugler's Holiday - Leroy Anderson

미국의 작곡가 르로이 앤더슨(Leroy Anderson)이 1954년에 작곡한 트럼펫 트리오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입니다. 곡 제목처럼 '나팔수의 휴일'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특징이며 트럼펫의 화려한 기교와 리듬감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주로 3명의 트럼펫 연주자가 솔리스트로 등장해 가볍고 민첩한 패시지를 주고받으며 유머러스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빠른 템포와 정교한 앙상블 호흡이 요구되는 이 곡은, 연주자의 기량은 물론 관객에게도 큰 즐거움을 주는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 Overture from Carmen - Georges Bizet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대표 오페라인 《카르멘》(1875)의 서곡으로 오페라 본편의 주제들을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극적인 긴장감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 서곡은 오페라에서 군악대가 등장할 때 사용되는 음악으로 시작되며 박진감 넘치는 행진 리듬과 강렬한 관악기의 연주가 인상적입니다. 이어지는 빠르고 역동적인 전개는 청중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며 비제 특유의 색채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입니다.

비극적인 오페라 《카르멘》과 달리 이 서곡은 생동감 넘치고 힘찬 분위기를 담고 있어, 독립된 관현악곡으로도 자주 연주됩니다.



#### Swan Lake, Op. 20: I. Scene - Pyotr Ilyich Tchaikovsky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P. I. Tchaikovsky)가 1875~76년에 작곡한 전막 발레 음악입니다. 그중 "I. Scene"은 호숫가 장면에서 연주되는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음악으로 백조로 변한 공주 오데트의 이야기와 마법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이 곡은 현악기의 부드럽고 애절한 선율, 그리고 점차 고조되는 오케스트라의 극적인 전개를 통해 동화 같은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백조의 테마는 발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율 중 하나로 손꼽히며 독립된 관현악곡으로도 자주 연주됩니다.

Swan Lake는 초연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후에 재해석과 재구성을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발레 레퍼토리로 자리잡았습니다.

#### The Nutcracker, Op. 71: Waltz of the Flowers - Pyotr Ilyich Tchaikovsky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P. I. Tchaikovsky)가 작곡한 발레 『호두까기 인형』(Op. 71) 제2막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곡으로, 화려하고 낭만적인 왈츠입니다.

이 곡은 꽃의 요정들이 무대 위를 우아하게 춤추는 장면을 표현하며 부드럽고 풍성한 선율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감정의 흐름이 섬세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특히 하프의 인상적인 도입과 점차적으로 고조되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는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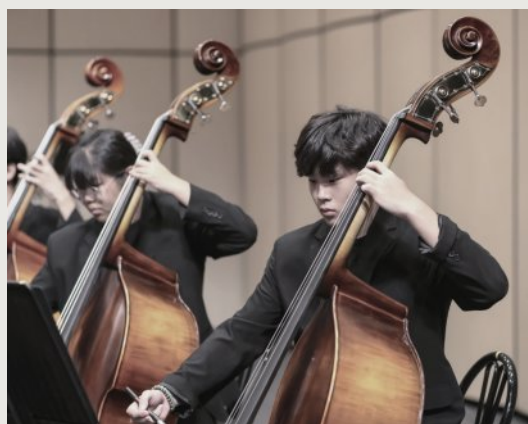
『호두까기 인형』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독립된 관현악곡으로도 자주 연주되며 연말 시즌 클래식 음악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인기 레퍼토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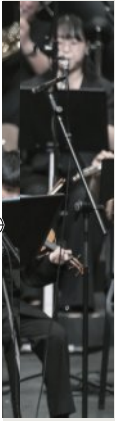


**김지희(호른)** 안녕하세요,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호른을 맡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무대에 서 보게 돼서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단원들이랑 같이 합을 맞추면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교향악 축제에서 해보지 않았던 곡들을 연주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단원들이랑 호흡을 잘 맞추면서 더 좋은 연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김슬은(비올라)** 안녕하세요,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비올라 파트 김슬은입니다. 저는 2019년에 오케스트라를 시작해서 2025년까지 활동해왔는데요. 이렇게 큰 무대에 서 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큰 음악 축제를 경험하면서 관객들 앞에서 제 연주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교향악 축제를 잘 마친 만큼, 이제 정기연주회도 단원들이랑 조금만 더 힘내서 실력도 더 키우고 재미있게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서로 다른 박자와 호흡이  
음악 안에서 천천히 맞춰지는 곳.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는  
음악으로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청소년들의 자리입니다.

서툰 음에서 시작해  
함께 호흡하고, 기다리고, 다시 맞추며  
하나의 소리가 되어갑니다.

무대 위의 연주,  
그 과정 속에서 자라는 건  
자신감, 연대, 그리고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귀 기울이는 법을 익히며,  
혼자가 아닌 '함께'의 소리를 만들어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라나는 시간 자체가 음악이 되는 자리입니다.

영월에서 시작된 이 작은 소리는  
청소년들의 오늘을 단단하게,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 단원 : 총 50명\*2025 기준

1st 바이올린 유예림 유하나 윤혜라 하수연 김지우 장이현 · 2nd 바이올린 유예성 이승민 심현우 윤채아 이민음 · 3rd 바이올린 박주원 윤서윤 김지영 윤다운 이태린 김다운 · 비올라 김슬은 이정은 김지우 홍한빈 윤나영 · 첼로 김지서, 이동민, 고은찬, 박나을 · 더블베이스 정그루, 권은수, 윤시우 · 플루트 유승연, 이가은, 홍윤아, 정익홍 · 오보에 이진우, 남경훈 · 클라리넷 최강주, 한라은, 박민율, 박솔아 · 트럼펫 지유람, 고은겸, 노영진, 김민성 · 호른 김지희, 이하준 · 타악기 이하늘, 권은성, 노찬율, 이태성, 남재훈

# 꿈의 극단

## '영월'

꿈의 극단 '영월' 예비거점 선정 후  
2기 최종선정

“꿈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예술을 위한 교육’이 아닌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는 원칙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를 찾는 방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지역 및 장르의 예술가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지원하는 한국적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입니다.

꿈의 극단은 아동·청소년 단원들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극본의 빈칸을 채우고, 원작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며, 연극적 상상력으로 나의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하는 곳입니다. 나를 믿고 내 마음을, 동료들, 이 사회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먼 곳의 이야기 보다는 지금 내 곁의 이야기들을 무대의 언어로 실험하고 공유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무대 위에서 단원들은 비로소 ‘나’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으며, 우리의 인생과 아주 닮아 있는 연극 한편을 만들어 갑니다.



## 무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머물 자리를 먼저 만든다.

연극은 무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다. ‘꿈의극단’이 예비거점과 정식 거점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꿈의극단에서 말하는 ‘거점’은 단순한 연습실이나 시설이 아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안전한 장소이며,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머무를 수 있는 작은 공동체다.

연극을 배우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연결되는 공간— 그것이 꿈의 극단이 말하는 거점의 본질이다. 예비거점은 이 공동체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시설의 크기나 접근성만이 아니라, 그 공간이 아이들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역의 기관과 사람들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그곳에 다시 오고 싶어 하는지를 살핀다.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관계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단계인 셈이다. 정식 거점 선정은 이 가능성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이다. 예비거점을 통해 쌓인 시간과 경험 위에서, 아이들의 일상이 자리 잡고, 강사와 코디네이터의 호흡이 만들어지며, 지역은 ‘교육의 공간’이 아닌 ‘성장의 장소’로 변한다. 이때 비로소 거점은 단순한 운영 단위를 넘어 한 지역의 문화교육 생태계가 된다. 특히 영월과 같은 지역에서 거점의 의미는 더욱 깊다. 학교와 집, 학원오르만 이어지는 동선 사이에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제3의 공간은 많지 않다. 꿈의 극단 ‘영월’은 연극을 하는 곳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가 된다.

그래서 거점을 만든다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세계를 넓히는 일이다. 예비거점과 정식 거점 선정은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이곳에서 아이들의 시간이 자라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영월이 꿈의극단 운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교육교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한 지역의 청소년들

과 앞으로 몇 년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단기 프로그램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영월이라는 지역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거점으로 선택되었다는 뜻이다. 이 지역이 청소년의 삶과 교육을 단순한 돌봄이나 체험이 아닌 ‘문화적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와 청소년기관, 문화시설과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권 기반의 환경이 이곳에 형성되어 있다는 평가이기도 하다.

특히 영월은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야기가 살아 있는 공간이다. 단종의 서사, 동강의 풍경, 지역 공동체의 기억은 꿈의 극단이 지향하는 ‘자기 이야기에서 출발해 지역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교육’과 깊이 맞닿아 있다. 이러한 장소성과 문화적 맥락은 영월형 꿈의극단이 단순한 복제 모델이 아니라 고유한 지역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꿈의 극단 선정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 무대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이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공간, 자기 목소리를 안전하게 낼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몇 년 뒤에도 “그때 내가 거기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

무대는 나중에 만들어져도 된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자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영월의 여러공간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품는 무대로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

영월의 꿈의 극단은 지금,

한 해의 사업이 아니라

한 세대의 시간을 천천히 만들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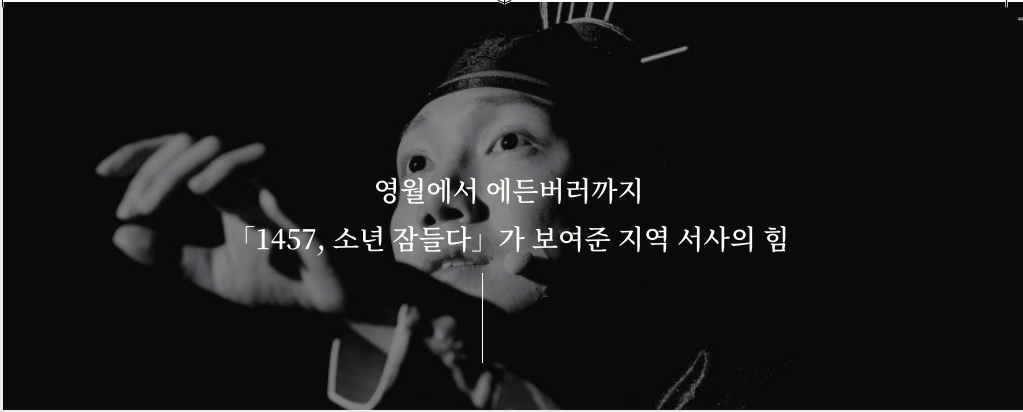


영월 창작뮤지컬  
「1457, 소년잠들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Asian Arts Awards*  
최우수상 수상

극단 시와별





## 영월에서 에든버러까지 「1457, 소년 잠들다」가 보여준 지역 서사의 힘

영월에서 태어난 한 편의 이야기가 지금,  
세계를 감동시켰다.

극단 시와 별의 창작 뮤지컬 《1457, 소년 잠들다》(1457, The Boy at Rest)는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관객과 평단의 마음을 스며들듯 깊게 흔들었다. 전막 한국어(영어 자막) 공연에도 현지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매년 전 세계 4,000여 작품을 선보이는 축제는 대부분 비언어나 영어 공연이나 작품성으로 한국 지역 창작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가 되었다.

작품은 조선 비운의 왕 단종이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1457년까지 영월의 유배 시절을 중심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지 한 왕의 비극만이 아닌 지역 실화 '능말 낫도깨비'와 충신 호장 '엄홍도'를 포함해 당시 얽혀있는 인간의 선택과 그리움을 그려낸다. 권력과 역사에서 비극적 운명을 살아낸 '소년'의 이야기며,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선택과 운명을 비추는 거울이다.

1457년, 어린 단종은 영월에서 노산군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1457, 소년 잠들다》는 그를 '왕'이 아니라 '소년'으로 불러낸다. 권력의 이름이 아닌 삶의 이름으로 불러낸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이 작품은 역사를 다시 숨 쉬게 만든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영웅도 거대한 전쟁도 없다. 한 명의 소년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소년이 남긴 침묵만 있을 뿐이다.

이 작품의 가장 특별한 점은 서울이 아닌 영월에서 창작되고 발전해왔다는 사실이다.

장릉의 숲, 동강의 물결, 이곳에 쌓인 수백 년의 기억에서 예술가들은 단종의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꺼내왔다. 영월의 공기, 기억, 시간은 무대 위 서사에 자연스럽게 펼쳐졌고, 그 결과 《1457, 소년 잠들다》는 어디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고유한 정서를 갖게 되었다.

작품에선 내내 '영월'을 이야기하고 영월로 초대하는 '어서오시오, 여기는 영월' 넘버를 들으며 관객들은 영월을 가보고 싶은 곳으로 그린다. 지역성과 보편성을 함께 담은 것이 이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다.

에든버러 프린지에서 세계 관객들은 '한국의 역사극'으로써 작품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인간의 선택과 상실, 그리고 기억의 의미를 만났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달된 연출과 서사로 작품이 특정 지역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울림을 갖게 만든 것이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이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로 슬픔이 아니라 공감 때문이다. 에든버러의 관객들은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왕이 자신 안의 '잊혀진 소년'을 만난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역사를 몰라도 공연이 끝난 뒤 많은 이가 눈물을 흘리고, 다른 이에게 입소문을 냈다. 슬픔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해 때문이고,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다.

《1457, 소년 잠들다》의 에든버러 공연은 지역 극단의 해외 진출을 넘어 지역 문화의 깊이가 세계와 만나고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시간이었다. 영월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길어올린 이야기가 세계의 가장 큰 무대에서 다양한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렸다. 이는 지역에서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도 얼마든지 빛날 수 있다는 증거이며, 영월이 지닌 문화적 잠재력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이다.

《1457, 소년 잠들다》는 영월에서, 그리고 다양한 장소와 무대에서 계속 관객들을 만날 것이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영월이 있다. 영월의 시간과 사람, 그리고 영월 예술가들의 마음이 국내외 관객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다.



영월에서 시작된 소년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의 기억 속에서도 잠들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야기가 그가 머물렀던 영월과 함께 이제 세계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영월일 것이다.

News

# 'Multiple fatalities' as Niagara Falls tourist bus crashes

Samuel Lovett New York

Several people, including a child, have died after a tour bus travelling from Niagara Falls to New York City lost control and crashed yesterday afternoon, police said.

A number of passengers remained trapped inside the wreckage as of 2.10pm local time, according to local authorities.

Photos taken by bystanders showed

the bus, which was carrying 52 people, had rolled over onto its side on a highway about 25 miles east of Buffalo, in New York State.

"At this time, we have multiple fatalities, multiple entrapments and multiple injuries," said James O'Callaghan, a spokesman for the state police.

The bus was travelling eastbound when it went into the central reservation and ended up in a ditch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O'Callaghan said. "The

driver is alive and well. We're working with him. We believe we have a good idea of what happened, why the bus lost control."

The passengers are mostly from India, China and the Philippines, officials said, and included children. Translators were being brought to the scene.

The death of one child was confirmed. Erie County Medical Center, a Buffalo hospital known as ECMC, said it had received at least eight patients at

the time of reporting. The Mercy Flight air medical transport service said its three helicopters were transporting people from the crash site to nearby hospitals.

A number of other helicopters and ambulances were also involved.

The New York governor, Kathy Hochul, said on X that she had been briefed on "the tragic tour-bus accident" and that her office was working with police and local officials.

## Quintagram\* No 2341

Solve all five concise clues using each letter underneath once only

- 1 Bestlow, present (4)
- 2 Internal organ (5)
- 3 Compare (5)
- 4 Wordsworth and Southey, eg (4,5)
- 5 Begin to assume form (4,5)

|   |   |   |   |   |   |   |
|---|---|---|---|---|---|---|
| A | A | E | E | E | E | E |
| E | G | H | I | J | K |   |
| K | L | L | L | N | O | P |
| P | R | S | T | T | V | V |

Solutions see p83  
Cryptic clues Review p45

## 'Russian roulette' spirits

Drinking even shop-bought spirits in some popular park-year destinations is like Russian roulette, according to a representative for the family of one of six backpackers who died due to suspected methanol poisoning in Laos last year. Amanda Dennis said government advice for travel to southeast Asia "needs to be much harder".

## Killing suspect in court

A man accused of killing Shaad Khan, 41, an ice cream seller in Wembley, northwest London, has been remanded in custody. Zaher Zaurar, 47, of Brentwood, northwest London, spoke to confirm his details at Willesden magistrates' court, charged with murder and possession of a bladed weapon. He is to appear at the Old Bailey on Wednesday and September 19.

## SW19 legal challenge

The Save Wimbledon Park (SWP) campaign group is intending to take its case to the Court of Appeal after losing its High Court challenge. SWP took action against the Greater London Authority over its 2024 decision to grant planning permission for the £200 million expansion of the All England Club, but the challenge was dismissed last month.

## No bathing at NI beach

A bathing ban is in place at Benone Strand, a popular beach in Limavady, Co Londonderry, because of a potentially toxic algae. Some forms of cyanobacteria, more commonly known as blue-green algae, can produce toxins which can cause diarrhoea, nausea or vomiting, skin, eye or throat irritation, as well as allergic reactions.

## TIMES RADIO Breakfast: Gam to 10am

Our free radio station has all the latest headlines, interviews and debates every morning. Listen seven days a week on DAB, app, website and smart speaker.



Seoul searching Fringe performers prepare in Edinburgh's botanic gardens for 1457. The Boy at Rest, which blends South Korean folk traditions with modern melodies

# Only one officer to catch stolen vehicles at Britain's biggest port

Ben Clatworthy Transport Correspondent

A lack of policing at British ports is fueling a surge in car thefts as criminals exploit "bottle in a haystack" searches before containers are loaded onto ships bound for Africa and the Middle East.

A lone police officer is responsible for screening containers for stolen cars at Felixstowe, the UK's biggest port, making it a gateway for exporting them. In the whole of the south of the country there are just three dedicated officers.

The lack of checks and a focus on inbound shipments is said to be a major factor behind the hug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rs being stolen from British streets and driveways.

Industry estimates suggest fewer than five in every 100,000 containers leaving Britain are ever searched, while criminals are getting better at concealing things. Stolen cars being shipped out of the UK, most commonly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and the UAE, are often loaded with other metal goods to hide them and confuse X-ray scanners.

Others are stolen and immediately taken to "chop shops" where they are cut up and stripped for parts, which are then exported.

When containers are selected to be opened and searched, the police must pay a charge of £200 to the port for the hold-up. It means that almost all physical examinations are evidence-led, not random screenings.

Adam Gibson, the only police officer at Felixstowe, said there was "no way in hell" that he could search even a tiny fraction of the containers before they get loaded onto giant ships that sail around the globe.

Essex police, who are responsible for Tilbury, the principal London port, recently discovered Bentley, Audi and Toyota cars worth £250,000 sandwiched into a container, though they also uncovered a £300,000 Rolls-Royce

Dawn hidden with the remains of 13 other chopped up cars and luxury Lexus saloons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In 2013, there were 27 thefts for every 1,000 privately owned cars, according to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the defence and security think tank. Now the figure is 4.4 thefts.

In total, 129,727 cars were reported stolen in 2024, a slight decline compared with 2023, when the number taken was the highest in more than a decade. The number was 90,000 in 2020 when pandemic lockdowns made it harder for criminals to operate with impunity. The surge in thefts ha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st of insuring vehicles. In some wealthy parts of west London, insuring a five-year-old Porsche SUV now costs more than £5,000 a year. Nationally, premiums are up 45 per cent in real terms in the past five years.

Between 2021 and last year almost 40 per cent of stolen cars that were inter-

cepted at ports were bound for the DRC, which acts as a gateway for the wider African market. The Toyota Hilux is a prized vehicle for this market. Twenty per cent were bound for the UAE.

"It really is a needle in a haystack," said Tim Morris of the Associated British Ports. "At any point there can be thousands of containers on the dockside. The information we have on what is in them is scarce and the ability to target is very hard."

The authorities do have more detailed manifests, but of course these do not say 'cocaine' or 'stolen cars' so it has to be intelligence led. As ports we are simply told to move X container from a stack to an inspection point."

Once a container is loaded onto a ship and its contents bound for international waters and foreign soil, the chance of ever recovering it is almost nil, and criminals know this. Britain must clamp down on this flourishing trade, leading article, page 27

영월 공연예술연습공간,  
위원장상 받다 -



한 번의 평가가 아니라, 쌓여온 시간에 대한 응답

2025년, 영월의 공연예술연습공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역운영기관 평가에서 위원장상(동상)을 수상했다.

짧은 한 줄의 성과이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이 공간을 지켜온 사람들의 시간과, 지역에서 예술을 이어온 수많은 노력이 담겨 있다. 공연예술연습공간은 공연을 올리기 위한 '준비의 장소'이자, 예술가에게는 가장 오래 머무는 창작의 집이다. 무대보다 먼저 만들어지고, 공연보다 더 많은 실패와 실험이 쌓이는 곳이 바로 연습공간이다. 영월의 공연예술연습공간은 그동안 지역 예술가와 외부 창작자, 청소년과 주민,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만나며 서로의 작업을 지지할 수 있는 열린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수상은 시설의 규모나 외형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가, 그리고 예술가의 실제 창작과 성장에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는가였다. 영월 공연예술연습공간은 단순한 대관 시설이 아니라, 연습·제작·교류·네트워킹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 창작 플랫폼으로서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영월이라는 지역에서 이 상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공연예술 창작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곧 예술가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이 연습공간은 지역 예술가에게는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외부 창작자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장소'가 되어 왔다. 위원장상(동상)은 그래서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이 방식은 옳다"는 공공의 확인에 가깝다. 지역에서, 작은 도시에서도, 공연예술의 생태계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월의 사례가 증명해 보인 셈이다. 이 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를 바란다.

연습실의 불이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첫 작품을 만들고,  
누군가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는 공간으로  
영월의 공연예술연습공간이 계속 살아 있기를.  
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도 이곳에서 누군가가 연습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2025 예술가의 서재

### 영월 예술인의 공간을 소개합니다

예술이 머무는 공간이 있습니다.

혼자 작업하고,

함께 연습하고,

다시 지역으로 흘러가는 자리.

예술가들은 이 공간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작업을 이어가고,

서로의 작업을 바라보며

영월이라는 지역의 감각을 다시 쌓아갑니다.

영월 예술인의 공간은

창작을 위한 쉼터이자 실험실이며,

지역과 예술을 잇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반입니다.

창작이 일상처럼 이어지고,

예술이 지역과 자연스럽게 맞는 장소.

서로 연결되는 공간을

매 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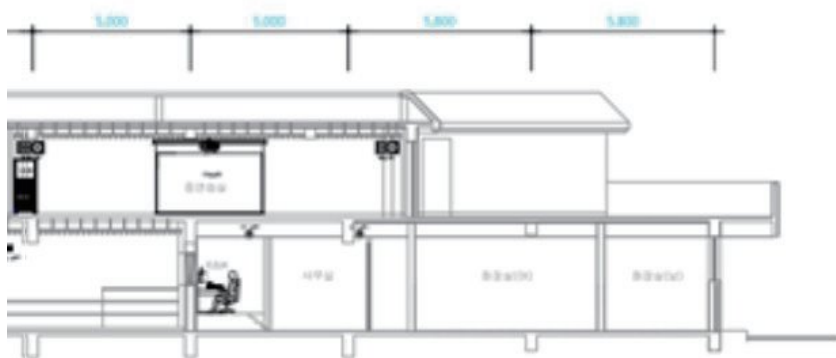




총면적 1,080㎡,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된 공간에는 대연습실과 중연습실, 네 개의 소연습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준비실과 탈의실, 샤워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진짜 크기는 평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처음 무대에 설 용기를 연습하고, 누군가는 다시 예술을 시작할 마음을 회복하며, 또 누군가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을 몸으로 풀어내는 자리. 이곳은 그렇게 각자의 속도로 예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2021년 3월 문을 연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은 전문 예술인만을 위한 폐쇄적인 연습실이 아니라, 누구나 공연 예술을 꿈꾸고 시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합니다. 무대 경험이 없어도, 전공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은 공연을 위한 공간이기 이전에,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예술이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선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언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휴게소가 길 위의 쉼이었다면, 지금의 이 공간은 예술로 나아가기 전, 숨을 고르는 연습의 자리입니다.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비어 있던 공간에 사람의 움직임이 쌓이는 곳.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어두고, 각자의 이유로 예술을 찾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아르코공연연습센터 @ 영월

## 대관신청

- 1 대관신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rko.or.kr/>)에서 신청
  - 2 대관심의** 대관심사 후 대관승인 확정(7일 소요)
  - 3 사용승인** 대관승인 확정 후 3일 이내 대관료 결제 **●미결제 시 자동승인 취소**
  - 4 시설사용**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 연습실 사용
- 문의처** Tel 033-375-6310, 6311



### 📖 대관정보

| 공간 구분      | 수용 인원 | 오전 10시~13시 | 오후 14시~17시 | 저녁 18시~21시 | 종일 10시~21시 |
|------------|-------|------------|------------|------------|------------|
| 대연습실       | 50명   | 20,000     | 20,000     | 20,000     | 40,000     |
| 중연습실       | 2~30명 | 10,000     | 10,000     | 10,000     | 20,000     |
| 소연습실 1,2,3 | 5명    | 5,000      | 5,000      | 5,000      | 10,000     |

### [ 대관신청 전 확인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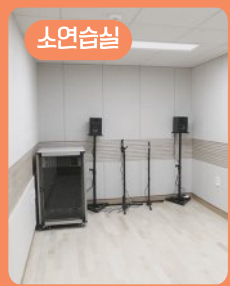
- 대관신청서 작성 전 유의사항 확인
- 대관승인 확정 후 대관료 미 결제시 자동 취소
- 수용인원은 최대수용인원이므로 초과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
-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대관시간 반드시 준수
- 장애예술가 및 탈북예술가가 포함된 단체의 경우 대관료 할인(최대50%)
- 물품대여는 대관자에 한해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